

남북 군사적 신뢰 구축·군비통제 추진

청와대 국가안보실 '안보전략' 제시

북핵 불용... 남북관계 개선의지 명문화

청와대가 13일 '희망의 새 시대, 국가안보전략' 정책서를 발간해 박근혜정부의 국방·통일·외교 분야 정책을 통합한 '국가안보전략'을 제시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낸 이 정책서에서 청와대는 국가안보 전략의 3대 기조로 ▲튼튼한 안보태세 구축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추진 ▲신뢰외교 전개를 설정했다.

◇“북핵해결과 남북관계 발전 선순환 추진”=청와대는 북핵문제에 대해선 불용 원칙을 견지하면서 북핵 포기를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압박과 대화를 병행한다는 전략을 재확인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 선

언 등 남북 간 기존 합의를 이행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드레스덴 구상에서 밝힌 민생 인프라 지원에 대해서 “농업·축산·산림을 함께 개발하는 복합농촌단지 조성사업과 조립 및 산림병충해 방제 등 산림녹화를 지원하겠다. 이러한 지원이 성공하면 신재생 에너지, 생태보전 등으로 협력을 확대해 '그린대당트' 사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적었다.

◇“군사적 신뢰구축 추진”=“북한 WMD(대량살상무기) 위협 대응능력 확보”=청와대는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정착을 목표로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를 추진하겠다는 전략도 제시했다.

천안함 및 연평도 도발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면서 상호비방과 도발중단, 무장적 충돌방지 및 교류협력 사업의 군사적 보장 등을 요구하고, 단계적으로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협의도 진행하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핵무기를 포함한 WMD는 안보에 심각하고 중대한 위협”이라고 진단하고, 한미 양국 간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를 통해 대응전략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북체제 불확실성 증대되나 남북신뢰 형성 가능”=청와대는 한반도 안보 정세와 관련, 북한 체제의 불확실성과 더불어 핵·미사일의 위협이 증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도발-협상-보상요구-재도발'로 이어지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으로 남북관계는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정치·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경우 남북관계에서 불신과 교착상태는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북한이 진정성 있는 자세로 대화와 관계개선에 호응해 나온다면 남북 신뢰형성의 기반이 구축될 수 있다고 청와대는 전망했다.

◇“일본과 안정적 관계발전...중견국 외교 전개”=청와대는 외교전략에 대해선 한미 군사동맹 강화를 첫 번째 목표로 제시하고 원자력 평화이용, 사이버 안보 및 우주공간 활용,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한미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과거사 문제로 냉각된 한일 관계에 대해선 “일본과는 올바른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며 “안보분야 협력은 우리 안보상 필요성을 고려해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관계 개선의 의지를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포스코~여수산단 해저터널 가시화되나

이낙연 지사, 지역발전위원장 등에 협조 요청

“여수세계박람회 부지

영호남 화합 상징돼야”

이낙연 전남지사의 민선 6기 공약인 포스코~여수산단 간 해저터널 구축 등 지역균형 발전사업과 관련 이원중 지역발전위원장,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을 지난 12일 잇따라 면담하고 협조를 구했다.

이 지사는 현재 포스코, 하나케미칼, 휴켄스, 이원, 에어리퀴드 코리아 등 5개 업체가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연장 4km 해저터널구축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의 사를 밝혔다.

이들 기업들은 1차 사업성 용역을 끝내고 추가 용역 발주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날 오후 광양에서 이 위원장과 한 위원장을 각각 면담하는 자리에서 이 지사는 “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도 균

형발전을 위해 노력해왔고 이후 역대 정권도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집중 억제 정책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풍선효과’가 발생해 수도권이 비대해지는 ‘수출권(수도권+충청권)’이 됐다”며 “진정한 지역 균형 발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시작이 목포~부산을 연결하는 남해안선벨트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여수세계박람회 부지를 영호남 화합 및 발전의 상징으로 조성할 것과 영광~부산 간 철도망 연결 복선화, 목포~보성 간 신설 등도 요청했다. 포스코 회장과는 최근 침체된 철강산업의 진흥방안 및 포스코 현안사업, 지역사회 공헌 사업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지사는 “공약사업인 포스코~여수산단 간 해저터널 구축과 관련 관련 기업과의 협의 진행 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남북협력기금 30억 투입

대북사업 28개 단체 신청

정부 재원인 남북협력기금 30억원이 투입될 대북지원 사업에 28개 민간단체가 신청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13일 “대북 인도적지원 사업 신청을 어제 마감한 결과 28개 단체가 37건의 지원 사업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보건 의료 15건, 농업 17건, 축산 5건의 신청이 들어왔다.

정부는 민간단체를 통하는 간접적 방식으로 농업, 축산, 보건 의료 3개 분야에서 각각 10억원, 총 30억원 규모의 인도적 대북 지원을 하기로 하고 사업 신청 공고를 냈다.

사업 분야는 영유아 질병 치료·예방을 위한 진료소 지원, 온실 지원, 영유아 영양 개선을 위한 낙농 지원 등 3가지다. 5·24 조치 이후 정부가 민간단체의 인도적 대북 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세계 1억인 서명 전달 나선 위안부 할머니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139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김복동, 김원옥 할머니가 세계 일억인 서명을 일본대사관 측에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시, 추경 3739억 증액 의회 제출

시청사리노베이션 8억 포함... 통과 여부 주목

광주시가 민선 6기 첫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을 광주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에는 윤장현 광주시장의 첫 지시사업인 시청사리노베이션 예산 등이 포함돼 있어 시의회의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광주시는 13일 “3739억원을 추가 편성

한 민선6기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광주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 예산의 일반회계는 3228억원(11.2%) 증가한 3조2170억원, 특별회계는 511억원(7.1%) 늘어난 7748억원으로 편성됐다. 추경은 예산의 실행 단계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경비로,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주요 추경 항목은 ▲2015회계U대회 경기장 건립 940억원 ▲영유아보육 57억원 ▲기초(장애인)연금 205억원 ▲경로당 냉방비 및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35억원 ▲노인일자리 창출 20억원 ▲기초정신건강센터 14억원 ▲재난관리기금 50억원 ▲소방차량 등 소방장비 확충 20억원 ▲교량신축이음 및 노후교량개보수 10억원 ▲상록도서관 건립 16억원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35억원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31억원 등이다. 또 이번 추경에서는 민선 6기 신규 사업

으로 ▲시청사 리노베이션 8억원 ▲소천아트팩토리 프로젝트 15억원 ▲평동종합비즈니스센터건립 10억원 ▲상무공원 관광자원화 15억원 ▲광주음악장작소 조성 13억원 ▲문화전당 주변 공폐가 정비 등 활성화 5억원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 11억원 등 7개 사업 77억원이다.

시의회는 오는 22일~9월 2일까지 열리는 제231회 임시회에서 2014년도 제1회 추경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시의회의 제2회 추경안 심의 의결기간은 11월4일~12월18일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새정치, 대변인에 박수현·김영근 추가 임명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13일 박수현 의원과 김영근 수석대변인을 선임 대변인으로 각각 임명했다.

유기홍 수석대변인과 한정에 대변인은 그대로 유임돼 박·김 선임 대변인과 함께 4명의 대변인이 활동하게 됐다.

초선의 박 대변인은 충남 공주가 지역구로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때 안희정 충남도지사 후보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거쳐 민주당 원내대변인, 김한길 전

공동대표 비서실장 등을 역임했다. 영남 출신인 김 대변인은 전남대를 졸업하고 한국경제신문 정치부장을 거쳐 국회사무처 공보관,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 공보특보, 민주당 상근대변인 등을 지냈다.

유엔해 원내대변인은 “당이 비상인 상황에서 당의 소식을 잘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원내와 원외에서 대변인을 각각 한 명씩 보강했다”고 설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밝은광주안과

노안(老眼)도 치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광고를 보면서 돋보기를 쓰고 보시나요?

노안시력교정수술로 편안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1566-9988 **수술방법**

- 라식수술을 하듯 각막을 깎아 초점을 맞춰 노안치료
- 인공 수정체 삽입으로 백내장과 함께 노안치료
- 각막에 초정밀 미세 인레이를 삽입하여 노안치료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신세계백화점 **밝은광주안과**

※목적용:수술초기 야간 빛반질, 노안라식 수술시 건조증등이 생길수 있습니다. 의료광고심의의결 제 140611-중-59153호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의결 제081110-중-10719호

Beautis
Clear skin & laser clinic

맑은피부과·성형외과

·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레이저 시술 전문클리닉
· 피부과 전문의 진료

레이저센터 (최신 30여종) | 항노화치료 | 기미클러닝 | 성형외과 | 지방이식 흡입 | 모발이식 관리 | 에스테틱

맑고 깨끗한 피부제안
For your best skin

- 최신레이저 30여종 보유

- ① 리프팅레이저: 물레리, 써미지, 웨너트 복합치료
- ② 이드를 레이저: 스쿠스팀, 아이슬 브이빔, 프락셀
- ③ 체오 레이저: 헤파맥스, 다이오우드제오
- ④ 피부 미백: 쉐미니스틴 엑셀, 쉐미니스틴 루비레이저
- ⑤ 주름·흉터: 프락셀 듀얼, 울트라펄스싱크로, 프랙토라 인트라라세, 프락셀 세나
- ⑥ 모공: 엔티지, 프락셀5중
- ⑦ 비인: 내오울트라, 지방흡입

[상무점] 상무지구 미즈피어빌딩B/D 1F | Tel: 385-7575, 1177 | 에스테틱: 385-0009 www.clear-skin.co.kr | www.s-thetic.co.kr
[문암점] 문암예술회관 건너편 3F | Tel: 528-1415 | 무료전화: 080-707-7575 | 에스테틱: 525-7555